

## 현장에 부치는 글

**지** 금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때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한보-소산계이트는 정직한 일과 보수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한보 청문회를 통하여 건설업과 정치권과의 부패고리가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우리 모두 방조 또는 묵인을 함으로써 작금의 '총체적 비리' 라는 사회 병리 현상에 한 몫을 한 것 같은 수치심과 패배감이 역병처럼 만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양식은 황폐해지고 진실과 거짓의 판단기준은 실종되었으며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린다고, 난데없이 불거져 나온 고속철도사업의 부실시공 시비나 돈암동 한진아파트 옹벽붕괴사고들은 아직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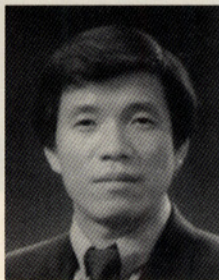
나라는 이 모양인데, 여러분 현장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가공사, 보상시비, 민원, 부실설계, 무책임한 감리, 발주처의 경직된 현장 관리, 안전사고, 소모적이고 빈번한 각종 이름의 감사, 협력업체 부도, 정말 낮은 단골손님들이지요. 어떤 현장이든 이들 중 몇몇 때문에 지난한 고통을 겪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매출과 실행목표가 경감되거나 유보되지도 않습니다. 본사의 목표달성 지시는 추상같은데 앞에는 온갖 애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경제불황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우리 모두 너무 왜소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개방이니 WTO 가입이니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은 고양되고 있는 듯 하나 그 허명만 요란할 뿐 자본이나 기술 중 그 어느 하나도 대외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외국기업의 대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생각하면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요. 우리에게겐 전후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한 것은 건설인이라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결의(Resolution)와 분발(Exertion)의 근간입니다.

자존심은 오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줄 묘약입니다. 자존심



**박종인** 이사  
/ 토목기술부, 품질보증부 담당

은 건설인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원천입니다.

업무성격상 저는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보게 됩니다. 많은 현장직원들이 일신의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한계에 도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방문한 싱가포르의 팜스프링스 콘도 현장, 자카르타의 스톡익스체인지 현장, 쿠알라룸푸르의 하이아트호텔 신축 현장 등은 우리 직원들의 일에 진력하는 모습에서 일의 숭고함과 정신의 위대함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집중하게 만드는지 -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온갖 악재와 난관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우군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현장이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 중에 기술적인 애로는 어떤 형태로든 상존하는 법입니다. 기술개발본부는 기술적인 해결책의 병참기지로서 현장의 소중한 우군이요, 동반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질적,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일선 현장에서 건설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무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SS**

현장이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 중에 기술적인 애로는 어떤 형태로든 상존하는 법입니다. 기술개발본부는 기술적인 해결책의 병참기지로서 현장의 소중한 우군이요, 동반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